

## 혹서기 대비 농장 점검 사항

6월이 되면 양계 수의사로서 왠지 마음이 조금 놓인다. 이유는 양계질병의 발생 빈도가 11월부터 5월까지 보다는 6월부터 10월까지에서 훨씬 떨어지기 때문이다. 양계 산업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호흡기 질병들(ND, IB, LPAI 등)은 주로 겨울로 들어가는 환절기에 시작되어 이듬해 봄철까지 피해를 주게 되는데 이것은 계사내의 환기량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일교차가 비교적 심하게 나타나는 5월이 지나 6월이 되면 일교차가 적어지고 하루 중 최저온도를 보이는 새벽시간이라 하더라도 환기가 일정량 이상 유지된다. 따라서 계사 내 환기상태가 불량하여 계군이 호흡기 질병으로 피해를 입는 정도는 극히 적어지게 된다. 그러나 외기 온도가 올라가고 갑작스런 더위가 시작되는 6월에 즈음해서는 계군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점검하고 준비해야 할 일들이 있다. 혹서기의 문턱인 6월에 점검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나열해 본다.



손 영 호  
반석가금진료연구소 소장

### 1. 열사피해 방지

6월에 열사피해를 언급하는 것이 조금 빠르다고 생각할지는 모르나 대부분의 첫 열사 피해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하는 6월에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닭은 안정적인 온도를 좋아한다. 환절기 때 계군에 질병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가 안정적이지 않은 환경의 변화, 즉 심한 온도차에서 오는 계군의 적응불량이라 할 수 있다. 7, 8월의 삼복더위에는 어쩔 수 없이 열사피해를 농장들이 입게 되지만 갑자기 찾아온 첫 더위에는 예상치 않은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곤 한다. 특히

산란에 처음 가담한 계군들은 우모가 양호하여 우모가 상대적으로 불량한 노계군에 비해 첫더위 피해의 대상이 되므로 각별히 유의하여 이즈음에서는 삼복더위에 준하는 관리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이 피부로 느끼는 더위의 정도와 상관없이 첫 더위에 적응해야 하는 계군들은 갑자기 닥친 더위에 생각보다 훨씬 민감하게 반응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갑작스런 온도 상승이 나타나면 환기량을 평소보다 많이 늘려주고 계군이 더위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제들을 준비하여 두었다가 신속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갑작스런 음수투약 등에 대비하여 음수 투약기 등을 미리 점검하고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하기 전 음수배관을 미리 청소해 놓는 것도 필수 사항이다. 쿨링패드 등 계사 냉각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농장들은 패드상태를 점검(오염상태 확인, 물이끼 등의 확인)하고 쿨링패드 가동 시 수량이 모자라는 일이 생기지 않게 지하수 상태와 양수기 등을 점검하는 것도 빠뜨려서는 안 될 것이다.

## 2. 가금티푸스 예방관리

외기 온도가 급상승하면서 세균이 번식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계군에 조성된다. 특히 산란계 및 육계 등에 상당한 피해를 일으키는 가금티푸스의 피해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가 이때라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백신을 철저히 사용하지 않았던 농장이나 계군에 대해서는 시기를 놓치지 말고 가금티푸스 생균백신을 접종하여 질병 발생에 철저히 대비하고, 중추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통하여 백신접종 유무를 확인하고 농장에

가급적이면 도착하기 약 2주전에 백신접종을 필한 후 농장에 계군이 도착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현재 가금티푸스가 발생하고 있는 농장들은 할 수 있으면 해당백신을 2차례정도 접종 한 후 산란계사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발생에 방을 위해서 매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가금티푸스의 발생여부를 계군의 폐사계를 대상으로 검사하여 확인하는 것도 빠져서는 안 될 일이다.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이러한 검사들이 이루어져야 하며, 깔짚을 교체하지 않고 사육하는 육계 농장에서는 입추 전 깔짚 검사를 실시하여 계사 바닥에 오염되어 있을 지도 모르는 세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을 권한다. 특히 이전 계군에서 가금티푸스의 피해를 경험한 농장의 경우는 깔짚의 교체를 실시하거나 효과적인 소독방법을 통하여 바닥 소독을 철저히 한 후 계군을 입추할 것을 권한다.

가금티푸스가 발생하고 있는 산란농장에서는 진드기의 구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진드기를 구제하지 않고는 가금티푸스를 근절할 수 없으므로 적극적인 진드기의 구제를 실시해야 한다. 진드기 구제를 위해 살포되는 약물은 높은 습도를 유발하여 열사의 피해를 동반할 수 있으므로 날씨가 더 더워지기 전(6월초)에 진드기를 철저히 구제하여(2~3회) 계군이 진드기로 인한 피해를 겪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 3. 사료빈 관리

매년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보통 6월 하순에 장마가 시작되는데 장마철이 되면 사료에 곰팡이가 쉽게 발생하게 된다. 마이코톡신은 계군의 면역력 저하, 사료효율 저하, 산란저하 및 탈



색란 증가, 그리고 폐사 증가 등의 피해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므로 습도가 높아지는 장마철에 대비하여 사료빈을 청소하는 일을 6월 중에 실시하는 것이 좋다. 가급적 사료빈을 완전히 비워 사료빈 벽에 달라붙어 있는 사료를 말끔히 제거하고 할 수만 있으면 빈에서 계사로 연결되어 있는 사료오거 및 관을 청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료빈이나 오거 및 관에 존재하는 오래된 사료 덩어리를 제거하여 사료가 지속적으로 곰팡이에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계사의 전기선 점검 등을 실시한다. 쥐가 쏘아 놓았을 지도 모를 전선 등을 점검하여 뜻하지 않은 전기사고에 대비하여야 하며, 낙뢰나 정전에 대비해 발전기 등을 점검하고 차단기의 작동여부를 테스트해 두는 것도 필수사항이다. 또 계사의 환기에 사용되는 뿔을 말끔히 청소하여 먼지가 많이 끼어서 원활한 환기를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뿔을 돌려주는 벨트가 낡지 않았는지 혹은 뿔의 장력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지도 점검하여 뿔의 작동이 제대

로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계사내부의 공기의 흐름도 꼼꼼히 체크하여 공기가 정체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만일 공기가 정체되는 부분이 있다면 환기시스템을 점검하여 이를 수정하여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게 해주어야 한다.

#### 4. 차단방역 관리

이 원고가 양계 독자들에게 읽혀질 때쯤에는 금년 4월초에 발생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의 발생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었던 하는 바람이다. 평소에도 마찬가지이지만 매년 HPAI가 발생할 때마다 차단방역의 아쉬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아직도 양계농가들 중에는 농장입구의 소홀한 차단방역은 물론 계사입구에도 발판소독 하나 설치하지 않은 농장들을 볼 때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차단방역에 철저한 농장들은 2중 혹은 3중으로 출입소독을 실시하고 불필요한 출입을 자제하는 등 질병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농장출입은 물론 계사 내부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신발을 교체하여야 한다.

농장내로 들어가는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뿐 아니라 운전자, 운전석도 반드시 소독해야 할 대상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질병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시기에는 계군을 도태하는 일이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다. 계군 도태 시에는 가급적 도태차량을 농장내로 진입시키지 말고 작은 차량(1t 화물차 등)을 이용해 계군을 수송하여 내, 외부 작업자를 철저히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농장내부에서 작업할 인부들은 철저한 소독 절차를 필한 후 농장에 들어오게 해야 한다. **양계**